

민간투자유치로 기업가치 제고

전북특구본부, 유관기관 합동 투자유치 IR 개최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서준석, 이하 '전북특구본부')는 26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제2차 유관기관 합동 투자유치 IR(이하 투자IR)'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개최된 이번 투자IR은 전북도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등 7개 민·관 창업 및 투자지원 기관이 공동 추진했다.

이번 행사에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전북특구 보육기업 (주)마이크로바이움(글로벌분해 유산균 제조)을 포함하여 각 유관기관이 발굴·보육하여 엄선한 기술기업 8개사와 ST투자파트너스 등 민간벤처캐피탈 6개 투

자기관이 참여했다.

참여기업들은 주요 아이템과 비전 및 향후계획을 5분 이내 엘리베이터 스피치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사업 아이디어를 발표했으며, 투자자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발표기업의 사업성과 투자 가능성을 위해 검토했다.

전북특구본부는 이번 투자IR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IR자료 작성법, 피칭스킬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참여 투자자들에게 발표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 참여기업의 특징과 강점을 민간투자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본 행사에서 전북특구보육기업 (주)비코리아(WIFI 공유기)를 통한 매장 솔루션)는 기술성과 성장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아 (주)에버그

린 파트너스와 3억원의 투자유치 약정을 체결했다.

이밖에도 발표기업을 포함한 사전 신청기업 16개사와 투자자의 일대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설명하는 등 자유롭게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전북특구본부는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투자IR, 해외투자상담회 등 다양한 기술금융연계를 통해 3년간 60건, 162.5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보였다.

전북특구본부 서준석 본부장은 "전북특구본부는 혁신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특구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민간자본과의 협력을 통해 특구기업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새만금에 첫 재생에너지 제조공장 착공... 수상태양광 부유체 등 생산

재생에너지 제조기업인 네모이엔지가 26일 군산시 새만금산업단지에서 제조공장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강팔문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네모이엔지는 2016년 세계 최초로 금속소재 수상태양광 부유체를 선보인 재생에너지 관련 업체다.

2022년까지 새만금산업단지 2공구 6만6000㎡에 475억 원을 투자해 옥상태

양광 구조물, 수상태양광 부유체,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을 생산한다.

네모이엔지 윤석진 대표는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제품을 생산해 인근 기업들에 공급하게 되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지리적으로도 대중국 진출과 해외수출에 이점이 있어 투자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은 "네모이엔지의 제조공장 착공이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새만금에 더 많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법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토지가액의 5%인 국내기업 임대료를 외국인투자기업과 같은 1%로 낮춰 장기임대유지를 제공한다.

개발청은 "산업위기지역인 군산에서 2021년 말까지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 100%를 감면받는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동부보훈지청, 완주·순창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교체

전북동부보훈지청은 오는 4월 1일부터 완주 및 순창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 가족에 대한 위탁 진료병원을 새롭게 교체,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완주에 새롭게 지정된 국가유공자 위탁병원은 한술의원(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81)으로 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11개 과목에 대해 진료를

하고 있다.

또 순창에서는 최선영 내과의원(순창군 순창읍 옥전로 60)이 위탁병원으로 새로 지정됐다. 이 병원은 2명의 전문의가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 4개의 과목에 대해 진료를 한다.

이에 따라 완주 및 순창에 거주하는 보훈 의료 대상자는 4월 1일부터 새롭게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국가유공자

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훈위탁병원 지정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 의료 대상자가 서울, 광주 등 6개 광역시에 있는 보훈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주거지 인근의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김석기 전북동부보훈지청장은 "새롭게 지정된 위탁병원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 가족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

"도내 수출 4개월 연속 감소... 대응 질실"

도, 수출기업과 간담회 열어

최근 동향 점검·지원방안 논의

전북도는 26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일자리경제국장 주재로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경제통상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등 수출지원기관 및 도내 중소기업 대표들과 수출활성화 제고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월에 이어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며 수출부진이 계속되고, 미중 무역분쟁과 新

보호무역주의 등 어려운 대외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주요 수출기업 7개사 대표와 수출 지원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수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무역협회전북지역본부 조성대 부장은 "최근 수출동향 보고를 통해 도내 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미중 통상마찰,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확산, 미국 고용지표 악화, 브렉시트 등 통상환경 리스크에 대한 불

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수출기업 대표들은 인도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지원, 전문인력 채용, 협력사 발굴 등 현장의 애로를 전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시책 마련을 건의했다.

도 내각훈 일자리경제국장은 "도내 중소기업이 수출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도와 수출지원기관들이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된다"고 주문하고, 수출기업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적극 시책에 반영하여 도내 중소기업이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중앙동 삼산의원 '익산근대역사관'으로 재탄생

근대 이리의 모습과 지역 항일운동·해방 후 변천사 등 전시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180호인 전북 익산시 '중앙동 삼산의원'이 '익산근대역사관'으로 재탄생했다.

26일 익산시는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근대역사관을 개관했다.

구 삼산의원은 당초 중앙동 3가 114-2번지에서 현 위치인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로 이전·복원된 근대문화유산으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인 김병수(金炳洙) 의사가 1922년 의원을 개원했던 건물이다.

이 건물은 건축 벽면에 수평의 띠 모양을 돌출시킨 코니스 장식과 입구의 아치형 포치 등 근대 초기 건축물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해방 후에는 한국무진회사, 한국공업은행, 국민은행으로 사용됐으며 역사적 의미와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5년 6월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이 건물은 등록문화재 지정 이후 장기간 공가로 유지돼 왔으나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 하는 건축주의 기증을 통해 이전복원 사업을 시작하

게 됐다. 이전복원 공사는 문화재청과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절단 공법 등 원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해 근대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했다.

역사관은 연면적 289.26㎡의 2층 건축물로 1층 상설전시실과 2층 기획전시실 및 교육실로 구성됐다. 역사관 1층은 근대 이리의 모습과 지역의 항일운동, 해방 후 이리·익산의 변천사 등이 전시된다.

2층에는 이리의 산업단지, 민주화운동, 이리·익산 통합 등을 주제로 전시공간이 마련됐다.

시는 구 삼산의원의 근대역사관으로 재탄생으로 역사교육과 함께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장인천 기자

전북도 금융산업 육성 '탄력'

전북도·KEB하나은행

외투기업 유치 업무 협약

전북도가 KEB하나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전북도는 2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 정민식 KEB하나은행 호남영업 그룹장, 이용원 호남영업본부장, 차주하 전라북도 투자금융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해 동반 성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외투기업 유치 및 외투기업 지원정책수립, 각종 인센티브 개발 및 행정적 지원 등 외투기업을 위한 투자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한다. KEB하나은행은 외투기업을 위한 법규, 국내외 금융, 회계, 세무, 경영 등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북도와 MOU를 체결 후 입주하는 외투기업에 대한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 및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또 외국인투자 전문가(Project Manager) 및 KEB하나은행 146곳의 해외지점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전라북도 해외투자 유치활동을 지원한다.

이원택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협약식에서 "KEB하나은행과 업무협약(MOU) 체결은 글로벌 외투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외투기업 유치는 궁극적으로 전라북도 경제과 이를 키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식 KEB하나은행 그룹장은 "전 세계에 나가있는 KEB하나은행의 지점의 정보망을 통해 우수한 외투기업 유치를 전북도와 손잡고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능동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와 함께 '금융중심지 지정', '전북 금융타운 조성사업' 등 전라북도 금융산업 육성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